

# 재일코리안의 사회문화운동 전개과정 고찰 : 사회운동에서 문화운동으로\*

임 영 언\*\*·김태영\*\*\*

(e-mail: yimye@hanmail.net · taeyoung@gwnu.ac.kr)

---

## 目 次

---

- I. 연구 목적
  - II.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 IV. 재일코리안 관련 국내외 연구 분석
  - V. 결론
- 

## I. 연구 목적

재일코리안들이 19세기 말부터 일본에 이주하기 시작한 이래 일본 식민지화와 더불어 대부분 오사카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거주하였지만 현재 일본의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다양한 형태로 생활하고 있다. 재일코리안들이 일본에서 생활한지도 이미 1세기 가량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그들의 거주형태나 생활패턴에 주목할 만한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1945년 일본의 패전이고 또 하나는 1980년대 전후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에 따른 외국인의 대량 유입발생과 다문화시대의 도래라 할 수 있다. 재일코리안은 1945년 전후 이미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후손으로 약 60만 명이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B00009).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제1저자).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과 교수(교신저자).

라는 올드커머(Old-comer)들이 정착하고 있었으며 1980년대 전후 뉴커머(New-comer)들이 새로 유입되면서 일본사회에서 그들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일본으로의 한인 이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 ‘조일수호통상조약(1876)’ 체결과 ‘청일전쟁’ 이후 일본자본의 조선 진출, 제2차 한일협약(1905)에 의한 한국의 보호국화, 1910년 한일합방이후 식민지 시기 ‘외지인’으로서 조선인들의 강제 징용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오랜 이주역사의 과정을 거쳐 일본에 정착한 재일코리안들은 1980년대 이후에야 가시적인 존재로 부각되었다. 그 이유는 일본정부가 기본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취업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1950년 한국전쟁의 특수에 의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1960년 고도성장기, 1971년 오일쇼크, 1985년 플라자합의를 거쳐 해외로의 경제 진출이 가속화되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일본경제의 엔고현상은 일본 국내외 소득격차를 확대시켜 새로운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1989년 일본은 이민법개정을 통해 종래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았던 외국인정책을 개정하여 먼저 동질 민족으로 생각했던 일계브라질인이나 페루인과 같은 중남미 일계인의 국내취업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가시적인 존재로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글로벌시대의 흐름은 그동안 일본국내에서 불가시적인 존재였던 재일코리안들이 가시적인 존재로 바뀌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지향점들을 크게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재일코리안들은 1945년 해방기의 혼란한 정국을 거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힘썼고 일본사회의 민족차별과 배제에 맞서 1970-80년대를 통해 전국적인 사회문화운동을 전개하여 법적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또 다른 다문화공생 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해방이후 재일코리안들에 의해 축적되어온 과거 60여년의 역사가 그들의 고령화와 정체성의 약화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창조하고 지켜온 재일코리안 사회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재일코리안 관련 기존연구들의 이론적 성과와 맥락을 같이하여 논문의 어떤 이론화나 검증작업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일코리안 관련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1945년 이후 진행되어 온 재일코리안 관련 연구에 초점을 두고 과거 연구들의 동향이나 성향을 고찰하여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착안점을 두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일코리안 관련 연구는 방대한 양의 문헌들이 존재하며 한국-일본-북한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많은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재일코리안 연구사 중에서도 이 연구는 그들이 일본국내외에서 생산한 연구사

의 측면에서 접근하다보니 소수자의 입장에서 민족이나 사회운동, 사회문제에 관련된 이슈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재일코리안 연구의 경향은 사회학적 고찰로 흘러버린 경향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는 재일코리안의 역사나 정치 경제학적 관계 등 기존의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된 연구들을 간과하거나 포착하지 못한 관점을 조명할 수 있고 향후 재일코리안 연구를 지속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재일코리안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획득 과정에 대한 사회운동이나 투쟁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재일코리안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한 지견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지난 2011년도에 실시했던 재일코리안 연구의 시대별 동향과 재일조선인 민족운동사의 후속연구가 되겠지만 참신한 관점에서 내용분석을 통해 기존연구를 보완하고 연구자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재일코리안 연구에 대한 주요 동향은 전체적으로 일본에서 실시된 재일코리안 관련 연구 분석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고 내용도 사회인류학적 측면에서 재일코리안의 디아스포라적 생활이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민족운동사에 천착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 연구는 당시 재일코리안 연구사에서 누락된 내용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연도별 정리보다는 주제별 내용분석을 통해 향후 재일코리안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오늘날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은 홉스봄(Eric Hobsbawm, 1983)이나 앤더슨(Benedict Anderson, 1991)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 집단이나 조직의 지식인이나 엘리트들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홉스봄(Hobsbawm)은 집단이나 국가에 의한 전통의 창조에 대해 “예로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통들은 사실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통의 창조는 어떤 단체나 조직에 속한 개인이나 국가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철저하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앤더슨(Anderson)은 인쇄자본주의(print capitalism) 활자가 신문이나 소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집단들에게 ‘상상의 공동체’의 논리를 형성하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인이나 집단의 전통창조와 민족형성과 관련하여 일본내셔널리즘을 연구한 요시노(Kousaku Yosino, 2001)는 내셔널리즘을 ‘우리’ 라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지닌 독자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집합적인 신앙과 국가라는 틀 속에서 실현하고 추진하려는 의지, 감정, 활동의 총칭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요시노(Yosino, 2001)는 문화내셔널리즘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어떤 국가가 문화적 정체성이 결여되고 불안정하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문화의 창조, 유지, 강화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공동체의 재생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글로벌시대 사회통합의 기제로 “일본인론”이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재일코리안은 1945년 전후 일제식민지시기 강제이주 혹은 징용·징병 등 여러 형태로 도입한 울드커머와 1980년대 전후 유학이나 취업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간 뉴커머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1945년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된 재일코리안에 대하여 소냐 량(Ryang Sonia, 2005)은 일본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일본인론”에 의해 소수민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1)</sup> 이와 더불어 일본의 학술지나 대중문화의 논조가 “일본인론”에 의해 일본 문화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다보니 구식민지 출신자인 재일코리안에 대한 문화적 편견이나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재일코리안들이 1945년 전후 울드커머, 1980년대 전후 뉴커머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형성한 연구사나 문화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일코리안의 이주와 현지생활을 통한 이문화체험은 일본에서 민족과 개인이라는 관계 속에서 재정립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령 한국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민족’에 매몰되었던 ‘개인’이 이주국 일본에서 문화적 이동을 통해 발견되는 과정과 이문화 현지에서 고독한 ‘개인’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연대하는 과정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민족 가운데 개인의 발견’, 혹은 ‘개인 가운데 민족의식의 생성 및 연대’라는 중층구조가 동시에 진행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전자는 종래의 민족이라는 틀이 탈구축 되고 후자는 새로운 민족이 재구축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각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재일코리안 역시 이동이라는 경험적 과정을 통해 ‘민족’과 ‘개인’의 관계성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주하기 전의 민족이라는 인식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어 재구축됨에도

1) ソニアリヤン、中西恭子譯(2005)『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在日朝鮮人とアイデンティティ』明石書店。

불구하고 재구축 시의 의미와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되고 있다 (平野健一郎, 2000).<sup>2)</sup>

글로벌시대 민족과 개인이 정치적 단위와 민족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원리로서 재구성되는 민족과 그 단위의 차이로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개인’이 비슷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민족의 개념이 반드시 일치되지 않는 현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Gellner, 2000).<sup>3)</sup> 따라서 여기에서는 재일코리안의 민족의 ‘재구축화 (Re-ethnification)’에 대하여 그들의 이동과정에서 일본이라는 이주지에서 일본의 정치와 사회구조적 조건 속에 파악되는 민족과 개인의 관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민족의 재구축화 작업은 1945년 전후 일본에 정착하기 시작한 재일코리안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논문에서는 재일코리안이 어떤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느냐보다는 이문화적 상황에서 생활하는 구조적 조건이 자문화의 응집성을 강화시키고 단체행동을 촉발시키며 그 응집성을 통해 결집의 방향성을 보여주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재일코리안들이 일본이라는 국가적인 틀 속에서 이문화적 경험을 통해 체득한 개인 내부의 문화변용과 흐름을 살펴보면 단체행동을 촉발시키는 ‘재민족화’의 과정을 겪기도 하지만 반대로 탈민족화(De-ethnification)의 방향성, 즉 ‘개인주의’의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일본에서 1980년대 전후 글로벌시대의 도래와 2000년대 이후 주창된 다문화공생 사회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일코리안의 이동이나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탈민족화와 재민족화’의 역동성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각성’이나 ‘선택’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이다. 재일코리안들의 민족적 ‘각성’이나 개인의 ‘선택’상의 ‘재민족화 및 탈민족화’의 차이는 글로벌화에 의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재일코리안의 이동과 관련해서도 이들의 이동과 동시에 발생하는 민족의 ‘무자각’이나 ‘어쩔 수 없는’ 결과로서 생성된 ‘재민족화와 탈민족화’의 역동성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재민족화와 탈민족화의 과정 속에 던져진 경우가 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재일코리안의 재민족화와 탈민족화의 경향은 자민족 집단의 내부인가 아니면 외부인가의 위치 여하에 따라 서로 상이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재민족화에 의해 재일코리안의 단체행동을 촉발시키거나 글로벌시대의 탈민족화의 경향에 따라 단체 활동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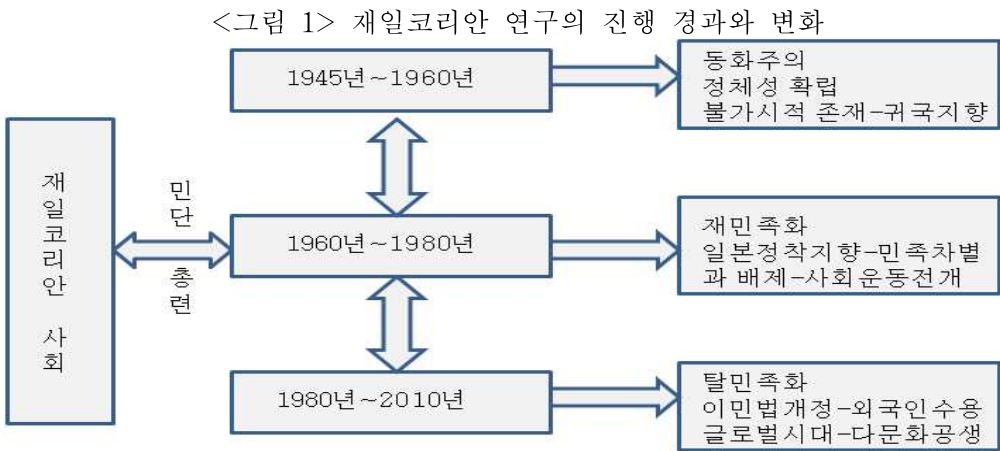
2) 平野健一郎, 2000, 『國際文化論』 東京大学出版会. p.2.

3)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Blackwell Publishers, Oxford (=2000, 加藤節監訳 『民族とナショナリズム』 岩波書店).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기존 재일코리안 연구의 동향에서 임영언(2011), 김인덕(2011) 등이 제시한 연구내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이론모델로 접근하고자 한다.<sup>4)</sup> 먼저 임영언(2011)은 일본에서 생산된 재일코리안 연구(일부는 한국에서 생산된 재일코리안 연구이기는 하지만)를 중심으로 재일코리안의 역사,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을 다룬 연구에 주목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그간의 재일코리안 연구자들을 세대별로 분류하여 연구내용을 살펴본 결과 제1세대는 재일코리안의 역사에 대한 관심, 제2세대는 재일코리안의 민족차별이나 취업차별, 법적지위와 참정권 등 사회문제에 천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일코리안 연구가 제3세대에 접어들면 일본 내 귀화자의 증가와 고령화로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재일코리안 연구가 쇠퇴한 반면 1980년대 전후 일본유학 연구자들의 한국 귀환으로 국내에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도 글로벌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다문화공생 사회가 주창되면서 재일코리안에 대한 연구주체나 장소가 크게 바뀌고 있으며 연구주체나 방법도 훨씬 다양하게 전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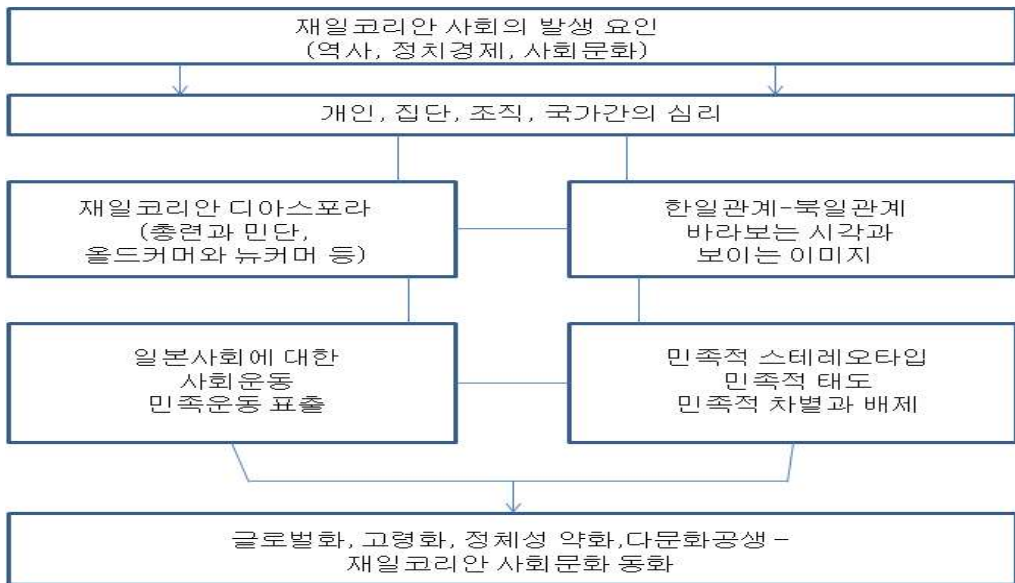
김인덕(2011)의 연구 역시 재일코리안 민족운동사 연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일코리안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간의 재일코리안 연구에 대해 재일코리안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의 부재, 재일코리안

4) 윤인진외(2011)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p.244참조.

사회의 형성과 일본인과의 관계, 재일코리안 역사의 연속선상이 아닌 단절된 시기별 연구동향, 국제관계나 역사사회학적 측면의 연구부재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일본에서 수행되어 온 재일코리안 1세대~2세대 연구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재일코리안 연구의 대안모색과 연구의 방향성 및 지평확대를 도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방대한 재일코리안 연구사를 총체적으로 다루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재일코리안 연구의 흐름에 대하여 일본 내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와 연동하여 어떤 변화를 경험해왔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그림 1>). 1945년 일제의 해방과 더불어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재일코리안 사회도 정치적으로 대립하게 되면서 이념을 달리하는 민단계와 총련계로 양분된다. 해방이후 혼란한 상태에서 재일코리안 역시 그들이 직면한 사회상황에 대한 각성과 더불어 재일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게 된다. 1960년대 이후에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전후하여 일본현지에 민족차별과 배제에 대한 대응형태로서 재민족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 2> 재일코리안 연구 과정과 전망



이러한 재일코리안 사회의 재민족화의 표출은 민족차별과 사회운동으로 반응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글로벌화와 다문화공생 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흐름을 서서히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고 재일코리

안의 탈민족화를 부추기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전후 단 일민족신화를 포기하고 다문화공생을 표방하기 시작한 것은 주로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06년 총무성 자치행정국 국제실장이 “지역의 다문화공생 추진계획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를 표방하였다. 2012년에 들어서면서 일본사회는 사회통합 정책으로서 다문화공생 정책이 다방면으로 실시되었는데 재일코리안 사회도 이러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었다.

<그림 2>은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45년 이후 재일코리안 연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존재이유와 확인차원에서 그들 자신과 재일코리안 사회의 발생적 측면에 집중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이전까지 재일코리안은 불가시적인 존재로 여겨왔지만 1980년대 이후 재일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그들의 가시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나 표출로서 사회운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사회에서 불가시적인 존재(보이지 않는 소수자)는 부락민 출신자와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코리안 출신의 귀화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사회에서 재일코리안 연구가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입장에 의해 결정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대한 대항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 재일외국인의 증가와 재일코리안의 가시적 존재의 인정은 반대로 재일코리안 사회 자체의 탈민족화를 촉진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글로벌시대 탈민족화의 경향은 재일코리안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들과 동시에 재일코리안 사회는 고령화, 민족정체성 약화, 일본사회의 다문화공생의 강조 등에 의해 민족정체성 유지(재민족화)와 동화(탈민족화)의 사이에서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이 논문은 종래에 시도했던 기존 재일코리안 연구의 연도별분석보다는 주제별로 분류하여 연구사를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방법은 일본 내 분석 자료로서 일본에서 발행된 재일코리안 관련 문헌목록과 자료집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日朝協會大阪府連合會(1960)에서 발행한 日朝貿易文化センター發行(1960)『日本で出版された朝鮮に関する図書目録(1945年8月15日から～1960年8月15日)』, アジア經濟研究所(1974)『旧植民地關



係刊行物總合目錄-朝鮮編-』、東京都中央図書館(1976)『東京都立中央図書館藏朝鮮語図書目錄』、アジア經濟研究所(1977)『朝鮮文雜誌·新聞總合目錄』、韓哲曦(1981)『靑丘文庫図書目錄』, 韓哲曦(1981)『靑丘文庫図書目錄 追補Ⅱ』、文化センター・アリラン(1995)『梶村文庫朝鮮關係図書目錄』、大阪市立生野図書館(1996)『韓國·朝鮮關連図書目錄』、園部裕之編(1996)『近代日本人の朝鮮認識に關する研究文獻目錄』、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행된 河かおる編(2006)『朴慶植文庫仮目錄2』 등을 참고하였다.

한국 내 분석 자료로서는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서 재일코리안 연구관련 키워드(재일조선인,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등)를 검색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일본 내 참고문헌으로 1995년에 발행된 카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문고는 해방 전후 조선사연구를 주도해온 그의 장서들을 정리한 것이다.<sup>5)</sup> 카지무라 문고는 일본어 단행본 약 3200권, 조선어 단행본 1650권, 기타 외국서적 100권 등 총 4,950여권이 정리되어 있다. 카지무라는 일생동안 조선관련 연구를 지속하여 600여권에 이르는 저서, 논문, 시평, 수필 등을 발표하여 다량의 저작활동을 한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 저작활동 가운데 카지무라가 수집한 문고는 조선사 연구를 중심으로 수집문헌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 째는 일본의 조선에 관한 역사자료나 사료, 개별분야의 연구서, 평론, 수필 등이며 둘째는 해방 전후 한국과 북한에서 출판된 역사와 경제 관련 연구서, 역사자료나 사료들이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해방직후부터 1950년대까지 상대적으로 연구가 자유로웠던 북한관련 도서는 북한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료들로 생각된다. 또한 여기에 보관된 재일코리안 시민운동관련 정보전달용 미니(미니코미)잡지들은 향후 재일코리안 관련 연구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sup>6)</sup>

여기에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가현립대학에 소재한 박경식문고이다. 시가현립대학 도서관정보센터에 의하면 박경식문고는 2003년 ‘박경식문고 가목록 1(13,432권)’을 발행한 이후 2006년에 ‘박경식 가목록 2(10,945권)’을 간행하였다. 현재 박경식문고는 이들 두 가목록의 도서총수를 합하여 24,377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에 존재하는 재일코리안 관련 최대 연구도서를 자랑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자료 가운데 특히 재일코리안(재일한국인, 재일한국·조

5) 文化センター・アリラン(1995)『梶村文庫朝鮮關係図書目錄』에서 「刊行にあたって」참고.

6) 이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다루기 힘들지만 향후 재일코리안 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대한 연구로서 재일코리안 사회운동에 대한 미니코미잡지의 수집과 분석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선인, 재일조선인 등)에 대하여 언급한 사회과학서적, 일본 내 재일코리안 문제를 다룬 자료, 민족문제와 사회문제를 취급한 자료에 한정하였다. 위에 제시한 목록들은 재일코리안 연구사 정리의 첫 단계에서 발간된 다소 불완전 것들이기는 하지만 재일코리안 관련 단행본이나 사전류의 일부가운데 재일코리안을 언급한 목록, 일본성청의 출판물, 재일코리안 관련 단체가 출간한 팜플릿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들 자료는 재일코리안 단체나 조직이 발간한 단행본, 잡지, 논문, 신문 등을 포함시켜 향후 총체적인 목록작성이나 도서해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IV. 재일코리안 관련 국내외 연구 분석

### 1. 일본 내 재일코리안 연구

#### 1) 재일코리안 사회의 변동과 사회운동 전개

재일코리안들은 1945년 이후 1960년대까지 일본 내에서 민족정체성 확립에 몰두한 시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재일코리안 사회는 1960년대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을 각성시키기 위한 사회운동으로서 민족탄압과 사회적 차별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재일코리안 사회가 1960년대 이후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민족차별운동 과정에서 사회운동 실천그룹들의 주장이나 사상을 담은 미니코미(소책자)정보지가 대량 생산되었다.

재일코리안 민단의 경우 1970년대는 1971년 단장 선거를 계기로 조직을 정비하여 서울에 모국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같은 해 3월 민단 정기중앙위원회에서 한국의 '유신체제'에 부응하는 민단 '쇄신체제'를 완성하여 '40만 새마을운동 전개' 등의 행동목표를 결정하였다. 특히 민단의 새마을운동 참가는 '재일한국청년회'를 중심으로 '새마을 운동' 봉사단의 파견, 한국 122개 새마을부락과 민단각급 지부와의 자매결연결단식 등 민단의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어 재일코리안들의 새마을운동 협력 기부금도 6억 8,600만원에 달했다.<sup>7)</sup> 민단의 이러한 적극적인 협력은 1973년 주일대사관을 통한 한국정부의 국민등록촉진, 민단강화, 영사사무의 개선, 호적정리 실시, 새마을운동 적극 참여 등에 부합하는 형태로서 진행되었다.

이에 호응하여 한국정부도 재외국민의 호적개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

7) 日本朝鮮研究所(1974) 『朝鮮研究』 133, pp. 6-7.

례법 제정, 재일코리안 자녀를 위한 ‘재단법인 한국교육재단’ 발족, 외무부 주최 민단 임원 및 간부연수회 개최,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모색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73년 1월 민단창립 후 김종필 총리의 첫 일본방문을 계기로 한국정부와 민단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재일코리안들이 한국정부의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철우 형제, 박선정, 최창일 등이 체포되는 스파이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인들에 의한 구명활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 중반에는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인의 방한도 증가하였다. 한국인의 일본입국자도 증가하여 주로 기술(기능)연수생의 저임금 노동자화가 일본 국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 일본 출입국관리법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로서 오키나와 통조림공장에 한국여성노동자가 유입된 사건은 한일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재일코리안 사회는 1970년대 이미 일본에서 출생하여 자란 세대가 75%를 차지하여 세대에 따른 의식차이도 분명해지고 한국과 일본사회의 대응에도 세대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일코리안들의 의식의 다양화와 수요를 반영하여 공동의 여론조성과 토론광장을 요구하는 취지로서 1973년 10월에 ‘계간 마당’이 창간되었다. 또한 당시 증가하기 시작한 재일코리안 귀화자의 실태를 반영하여 ‘한국계 일본인’의 전국조직으로서 ‘성화클럽연합회’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재일코리안 사회의 위기의식과 함께 일본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 재일코리안의 취업차별에 따른 사회운동도 본격화되었는데 송두희, 김기원, 박종석, 손진두 등의 민족차별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가령 일본인들에 의한 효고 현 아마가사키(尼ヶ崎) 공업고등학교의 취직차별 규탄, 오사카시 나가하시(長橋)소학교의 민족학교 설립문제와 본명사용운동 등 재일코리안 사회의 제반문제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민족차별과 배제에 대한 재일코리안 사회운동은 대개 지역단위의 각종 ‘지지모임’이나, ‘생각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전개된 재일코리안 사회운동과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것은 기독교계의 인권활동이다. 해방 이후 일본에 머물게 된 목사 및 크리스천들은 1945년 11월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를 설립하여 일본기독교단으로부터 전격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들 ‘재일본조선기독교연합회’의 가장 큰 활동 중의 하나로서 각종 재일코리안 사회의 인권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연합회는 1959년 제15차 교단정기총회에서 재일동포의 ‘북한송환에 반대하는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1974년에는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를 설립하

여 재일조선인의 인권문제에도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재일코리안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1984년에 '재일본대한기독교회 지문거부실행위원회'를 결성한 후 1985년에는 '일본기독교단과 합동으로 8만 명의 '지문날인제도철폐요구서명'을 받아 일본법무성에 제출하였다.<sup>8)</sup> 재일코리안 사회의 인권활동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일기독교회는 인권활동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민족적 색채가 짙은 곳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재일코리안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운동 개입이 나중에 일본인 크리스천들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 즉 쇠퇴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sup>9)</sup>.

## 2) 재일코리안 연구에 나타난 사회운동의 내용분석

1945년 해방 이후 일본은 재일코리안에 대하여 식민지주의 극복과 원상회복 조치 등 어떤 특별 조치도 없이 외국인으로서 추방과 동시에 동화정책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발효 이후 일본정부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민족차별은 국적구분에 의해 더욱 합리화되어 기본인권이나 권리마저 박탈당하게 되었다.

재일코리안은 해방 이후 일본에서 구축된 '단일민족국가'의 신봉과 일본사회의 압도적인 동화정책의 압박에 의해 민족정체성의 유지가 매우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코리안에 대한 전후보상 및 사회보장상의 소급(회복)조치, 민족교육권리, 지방자치에 참가할 수 있는 주민으로서의 법적지위 등 구식민지출신자 및 그 자손에 대한 권리보장이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면 재일코리안 연구에서 이러한 재일코리안의 사회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 3>은 기존 재일코리안 연구의 문헌목록을 내용 분석하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시한 표이다. 먼저 1945년에서 1960년대 사이 재일코리안 연구의 키워드는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조선인의 생활, 귀국문제, 생활실태, 귀국실현, 종합조사 연구 등이었다. 이들 내용들은 주로 재일코리안들이 해방 이후 혼란한 정국 속에서 어떻게 거주지 일본에서 살아갈 것인가, 즉 그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과 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재일코리안들은 일본을 영주가 아닌 일시 거주지로서 생각하고 있었으며 언젠가는 모

8) 임영연(2010) 「일본의 문화적 특징이 기독교 성장에 미친 영향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43집, pp.7~8.

9) 崔吉城 (1995) 「在日韓国キリスト教の普遍性と民族性」 『中部大学国際関係学部紀要14』 中部大学, p.39~48.

국에 귀국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대대적인 모국 귀환사업의 하나로서 1959년부터 북송귀국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960년-70년대 들어서면 재일코리안 사회는 일본인들부터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을 받게 된 재일조선인 중고생 폭행살상사건을 필두로 법적지위문제, 민족교육권리 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일코리안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재일동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재일코리안 연구도 인권침해, 자유왕래, 기본적 인권, 민족교육, 외국인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에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부터 재일코리안 시민운동단체로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재일조선인 인권옹호투쟁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재일코리안들에 의한 조직적인 사회운동이 전개되었다.

재일코리안 사회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그 이유는 재일코리안 2세-3세가 증가하면서 모국으로의 귀국보다는 일본정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재일코리안 1세대도 일본정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자 자연히 소수민족으로서 재일코리안들에 대한 민족차별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즉 재일코리안들이 정착지로서 일본사회의 제도적 차별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재일코리안 사회의 민족차별투쟁은 구체적으로 1970년 박종석이 히다치제작소의 입사시험에 통명으로 합격했지만 한국적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사건이나 1976년 김경득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국적조항에 저촉된 한국적이라는 이유로 사법연수원 입소를 거부당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정주를 지향하는 재일코리안들은 일본의 민족차별에 대하여 사회제도적 차별철폐를 요구하며 사회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갔다. 당시 재일코리안들에 의한 히다치 민족차별투쟁은 일본 전국 8개소에서 대대적인 규탄대회가 열렸으며 이러한 사회운동의 결과 재판에 승소하기도 하였다.<sup>10)</sup> 이러한 사회운동의 연속선상에서 ‘민투련(민족차별과 투쟁하는 연합협의회)’이 결성되는 등 재일코리안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1970-80년대는 재일코리안 사회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민족차별과 지문날인거부운동, 본명사용운동 등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전국적으로 재일동포들에 의한 각종 지지모임과 지원모임, 생각하는 모임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1980년대 재일코리안 사회운동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 내 재일코리안 정치범 석방운동과 연동되면서 한국의 민주화투쟁과정의 하나로 사회운동

10) 調布물레의會(2010) 『日本の外国人政策と在日コリアン』エルウィン、p.30참조.

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sup>11)</sup>

재일코리안 민족차별운동은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1980년대 일본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으로 발전되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가령 일본정부의 재일코리안 지방공무원 채용, 도영주택 및 공단주택 입주문제, 지방참정권 및 생활권의 확보문제 등이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어 갔다. 재일코리안의 민족차별운동은 일본에서의 정주를 확실히 하려는 과정에서 외국적 시민으로서 민족차별을 사회운동으로 표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글로벌시대 이후 1990년대 중반 무렵 재일코리안 연구는 1980년대 민족차별운동을 계승하면서도 우토로(宇土口) 문제나 공무원 국적조항 철폐문제 등 재일코리안과 다문화공생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사회운동이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재일코리안 연구자체도 감소하고 있다.

<표 3> 일본 내 재일코리안 연구의 주요내용 분석(1945년~2000년)<sup>13)</sup>

주제별 키워드	주제별 주요내용(단행본 및 자료집)	비고
재일코리안의 정체성 확립 생활실태, 귀국(복송)문제, 도항사, 정체성 등	조선인의 생활개황 재일조선인 귀국문제의 진상 재일조선인의 생활실태 재일동포들의 귀국실태 재일조선인에 관한 종합조사 연구	<1945년~1960년>
재일코리안 사회운동 1 중고생 폭행살상사건, 자유왕래, 법적 지위, 인권과 민족 교육권리 등	재일조선인 중고생 인권침해사건 조사 재일조선인 조국자유왕래 실현을 위하여 재일조선인 법적지위 및 기본적 인권의 실태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재일조선인 탄압과 박해 책동 출입국관리법안을 폭로한다. 외국인등록법을 고발한다.	<1960년-1970년>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재일조선인 인권옹호투쟁 위원회
재일코리안 사회운동 2 조선고교생 습격사건, 국적문제, 취직 차별, 연금과 차별	조선고교생에 대한 습격사건 조사보고서 조선대학교 직원 부당체포 사건의 진상 재일조선인 동화교육에 대한 고찰 박종석 취직차별 재판 3년간의 지평 재일조선인 차별과 그 치우 실태 가와사키 지역운동: 민족운동으로서 지역 활동을 지향하며 재일한국조선인 법적지위와 민족교육 재일조선인 취업차별 연금과 차별: 또 다른 무연금자 조선인 피폭자실태 무엇이 문제인가?(차별백서 제1집)	<1970년~1980년> 재일조선인 인권옹호투쟁위원회 박군을 둘러싼 모임 재일동포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신경환군을 지지하는 모임 인격권 소송을 지지하는 모임 재일한국/조선인의 국민연금을 요구하는 모임 강씨 일가를 지지하는 모임
재일코리안 사회운동 3 민족교육, 민족차	재일한국인 정치범과 우리들 재일한국조선인과 민족교육 외국인등록법 지문날인거부 재판자료	<1980년~1990년> 진두현씨를 구하는 모임 재일조선인 교육 연구 전국 협의회

11) 위의 책(2010), p.37참조.

12) 앞의 책(2010), pp.38-39참조.

별, 지문날인거부, 외국인등록법, 민족명	재일2세-3세의 살아가는 방법과 본명 지문은 인권을 침해한다. 재일조선인 교육운동과 실천의 발전을 위하여 본명은 민족의 자랑 이군/손군을 우편 외무직으로 지문날인제도와 재일한국조선인 지문날인제도 완전철폐를 위하여 재일조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외국인등록법 일본의 지문제도 피폭조선인교사의 전후지 일본적조선인의 투쟁의 계적: 재일외국인의 거주권	재일조선인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무궁화회 물레의 회 민족차별과 투쟁하는 연락협의회 현승원씨를 지원하는 모임 박추자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이군/손군을 생각하는 모임 정광용씨 재류권 소송과 투쟁하는 모임 지문거부를 생각하는 모임 4/24한신교육투쟁을 기록하는 모임 민족명을 되찾는 모임
재일코리안 사회운동 4 전후보상, 국적조항 철폐, 우토로문제, 다문화공생	일본의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심포지엄 한일법적지위협정 제심의 왜 재일한국조선인은 전후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 재일한국조선인의 채용을 요구하며 우토로: 방치된 마을 21세기 비전: 재일한국조선인 사회	<1990년~2000년> 일한 전후보상을 생각하는 모임 재일의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모임 공무원 채용의 국적조항 완전철폐를 요구하는 모임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

## 2. 한국 내 재일코리안 연구

### 1) 재일코리안 관련 연구 검색결과 분석

재일코리안 관련 국내 연구로서는 최대의 학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서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먼저 재일코리안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국조선인’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들 단어를 키워드로 선택하여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다. <표 4>는 재일코리안 관련 연구의 검색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 제시된 검색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재일조선인’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순서로 사용되어 단어의 역사성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일코리안을 지칭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검색한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일조선인이라는 단어로 검색한 결과를 살펴보면 RISS에서는 총 1,472건으로 학위논문 113건, 국내학술지 논문 408건, 단행본이 920건 등이었다. KRI에서는 총 172건으로 논문 119건, 저역서 25건, 학술활동 17건 등이었다. 다음은 재일동포라는 용어로 검색한 결과 RISS에서는 총 1,220건으로 학위논문 78건, 국내학술지 350건, 단행본 726건, 기타자료 64건 등이었으며 KRI에서는 총 182건이 검색되어 그 중에서 논문이 100건, 저역서 34건,

13) 필자가 기존 재일코리안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것임.

연구비실적 27건, 학술활동 20건 등이었다.

다음은 재일교포라는 용어를 활용한 검색결과를 살펴보면 RISS에서 총 851건이 검색되었는데 그 중에서 학위논문 57건, 국내학술지 논문 123건, 단행본 658건, 기타자료 18건이었다. KRI에서는 총 60건이 검색되어 논문실적 43건, 저역서 2건, 연구비실적 7건, 학술활동 7건 등이었다.

재일한국조선인이라는 단어로 검색한 결과에서는 RISS에서 총 771건이 검색되었는데 이들 중 학위논문 64건, 학술지논문 243건, 단행본 446건, 기타자료 18건 등이었다. KRI의 검색결과는 총 8건으로 논문 6건 저역서 2건으로 나타났다.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로 문헌을 검색한 결과, RISS에서는 총 242건으로 학위논문 18건, 학술지논문 97건, 단행본 112건, 기타자료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KRI에서는 총 91건이 검색되었는데 그 중에서 논문 48건, 저역서 29건, 연구비실적 5건, 학술활동이 9건이었다.

<표 4> 한국 내 재일코리안 연구의 내용분석(1980년 이후~2013년)<sup>14)</sup>

주제별 키워드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KRI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연구의 주요내용 (논문 및 단행본자료)
재일조선인	총 1,472건 검색 학위논문(113), 국내학술지논문(408), 학술지(1), 단행본(920), 기타자료(30)	총 172건 검색 논문(119), 저역실적(25), 연구비실적(10), 전시작품(1), 학술활동(17)	검색기준-재일코리안 <학위논문>이주와 취업, 지위변화, 일본국적 취득문제, 주민투표권, 민족과정 다양화(민단동향), 재판, 한일문화콘텐츠, 재일조선 학교 교육변화, 재일한인작가, 선교전략, 기원과 정체성, 국적문제, 디아스포라문학, 코리아타운, 한류(협한현상)
재일동포	총 1,220건 검색 학위논문(78), 국내학술지논문(350), 학술지(2), 단행본(726), 기타자료(64)	총 182건 검색 논문실적(100), 저역실적(34), 연구비실적(27), 전시작품(1), 학술활동(20)	
재일교포	총 851건 검색 학위논문(57), 국내학술지논문(123), 단행본(658), 기타자료(13)	총 60건 검색 논문실적(43), 저역실적(2), 연구비실적(7), 전시작품(1), 학술활동(7)	<학술지논문>민단, 현황과 미래, 취업차별, 법적지위, 지방참정권, 민족정체성, 민족교육, 기업 및 기업가 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경제활동, 개호보험서비스, 사회보장, 복지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제사의 변용과 ‘한’, 재일조선인과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여성, 다문화주의, 디아스포라와 트라우마, 공민권운동, 민족축제, 문화적 갈등, 박물관, 고령자, 재일코리안 문화, 디아스포라와 문학, 디아스포라 소설, 한류, 이카이노, 코리아타운, 한인디아스
재일한국·조선인	총 771건 검색 학위논문(64), 국내학술지논문(243), 단행본(446), 기타자료(18)	총 8건 검색 논문실적(6), 저역실적(2)	
재일코리안	총 242건 검색 학위논문(18건)-2005년 이후 국내학술지논문(97건)-1990년대 말 이후 단행본(112건)-1990년	총 91건 검색 논문실적(48), 저역실적(29), 연구비실적(5), 학술활동(9)	



	대 말 이후 기타자료(15)		포라, 민족예술, 다문화공생 <단행본 및 기타자료>
--	--------------------	--	---------------------------------

## 2) 재일코리안 연구의 내용분석

재일코리안 관련 국내 연구의 검색결과, 연구성과의 대부분이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검색 수가 많은 ‘재일조선인’이나 ‘재일동포’의 용어가 포함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초반부터 생산되기 시작하여 비교적 역사성이 깊었으며 재일코리안이 사용된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가장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를 활용한 학술지 논문이나 단행본은 1990년대 말부터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하였으나 학위논문의 경우 대부분 2005년도 이후에 생산된 것이어서 최근에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연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일코리안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은 RISS 전체의 문헌을 분석하기에는 분석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재일코리안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의 내용만을 중심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단행본의 내용분석을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는 전체적인 문헌내용을 고찰한 결과 학술지 논문의 내용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재일코리안이란 용어의 검색을 활용한 학위논문의 내용 분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재일코리안 관련 구체적인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재일코리안의 이주와 취업, 법적지위변화, 일본국적 취득문제, 주민투표권, 민족과정 다양화(민단동향), 민족차별과 취업차별 관련 재판, 한일문화콘텐츠, 재일조선학교 민족교육문제, 재일한인작가, 선교전략, 재일코리안의 기원과 정체성, 국적문제, 디아스포라문학, 코리아타운, 한류 등을 다룬 연구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의 내용분석결과 1960년대 이후 재일코리안이 직면했던 사회문제에서부터 최근 한류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술지 논문의 경우 주요 내용은 시대적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크게 다음 6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었다. 첫째, 재일코리안 사회를 인식하기 위한 현재적 상황을 다룬 연구들이다. 둘째 재일코리안 사회에 대한 일본정부의 취업차별, 법적지위, 지방참정권 등 민족차별에 대한 연구이다. 셋째, 재일코리안 기업이나 기업가, 경제활동을 다룬 연구들이다. 넷째, 재일코리안의 민족교육이나 민족정체성, 민족축제나 문화적 갈등을 다룬 연구들이다. 다섯째 재일코리

14) RISS(<http://www.riss.kr/index.do>: 검색일 2013. 04. 29)와 KRI(<https://www.kri.go.kr/kri/rp/main.jsp>: 검색일 2013.04. 30)의 통합정보를 바탕으로 필자작성.

안들의 고령화에 따른 그들에 대한 개호보험서비스, 사회보장, 복지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제사의 변용과 ‘한’ 등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었다. 여섯째, 재일코리안을 디아스포라로서 규정하고 그들의 문화, 축제, 문학, 예술, 그리고 다문화공생과 코리아타운 한류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내외 재일코리안 연구내용 비교

지금까지 국내외 재일코리안 연구 내용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아래 <표 5>는 재일코리안 연구의 국내외 연구경향을 간략하게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일본 내 재일코리안 연구동향은 일본에서 발행된 재일코리안 관련 연구목록의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국내연구는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의 ‘재일코리안’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일본에서 재일코리안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혼란 정국을 통해 재일코리안의 지식인이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민족정체성 확립에 매진한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일코리안 민족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기반위에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의 ‘재민족화’ 과정으로서 민족차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계나 각종 단체의 ‘지지도임’, ‘생각하는 모임’들이 생겨나면서 민족을 동원한 본격적인 사회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일코리안의 사회운동과정에서 생산된 미니코미정보지가 사회운동의 확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재일코리안 사회의 생생한 역사적 사료로서 연구의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일코리안 사회는 1980년대 이후 글로벌시대와 더불어 ‘탈민족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민족정체성의 약화와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재일코리안 연구의 주도권이 재일코리안에서-국내 연구자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국내외 재일코리안 연구내용 비교<sup>15)</sup>

비교대상	일본 내(1945년-1990년대 말) 재일코리안 관련 연구목록 분석	한국 내(1990년 말-2012년 현재) RISS와 KRI 재일코리안 키워드 분석
재일코리안(재일조선인,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정체성 확립시기. ‘재민족화’ 과정으로서 재일코리안 민족차별에 대응하는 기독교계나 각종 지지도임, 생각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투쟁과 사회운동전개 및 운동과정에서 역사적 사료로서 미니코미정보지가 생	연구주체 및 장소의 변화 1990년대 말 재일코리안의 탈민족의 영향으로 일본 내 연구 및 연구자 감소. 일본 유학생의 귀국 및 19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과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 증가로 1990년대 말 2000년대 이후 연구 및 연구

15) 이 표는 내용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한 것임.

재일코리안) 연구 경향	산됨. 1980년대 이후 일본 글로벌화와 다문화공생의 영향으로 ‘탈민족화’ 경험. 1990년대 말 이후 재일코리안 연구 주도권 재일코리안에서-국내 연구자로 전환.	자 대폭 증가. 재일코리안 연구가 민족차별과 사회운동에서 경제활동, 민족교육, 민족정체성, 축제, 다문화공생, 코리아타운, 한류 등으로 연구주제나 관심 전환.
-----------------	--	---

일본 내 재일코리안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말 재일코리안의 탈민족의 영향으로 일본 내에서는 재일코리안 연구 및 연구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재일코리안의 고령화, 젊은 청년층의 민족정체성 약화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대 일본정부의 다문화공생의 주창과 적극적인 실천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내 재일코리안 연구는 1980년대 전후 대량으로 독일한 유학생들의 한국귀국 및 19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에 따른 재일동포에 대한 관심 증가로 1990년대 말 이후부터 재일코리안 연구 및 연구자가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에서 재일코리안 연구가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연구내용은 종래 재일코리안의 주요 관심사였던 일본 내 민족차별과 배제보다는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재일코리안의 경제활동, 민족교육, 민족정체성, 축제, 다문화공생, 코리아타운, 한류 등 각론적인 연구주제가 증가하여 과거보다 훨씬 다양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에서 수행된 재일코리안 연구에 대한 주제별 내용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의 재일코리안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재일코리안 연구의 지평확대에 일조하는데 있다.

이 논문의 분석 및 연구방법은 주로 1945년 이후 재일코리안 관련 연구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전체적인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자료로서 일본 내 재일코리안 연구 자료는 전술한 일본에서 발행된 재일코리안 관련 문헌목록과 자료집을 참고하였다. 한국 내 재일코리안 연구 자료는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서 재일코리안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여 논문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들 재일코리안 연구문헌목록 및 자료의 검색을 통한 분석결과 일본 내 연

구동향은 재일코리안들이 1945년 해방과 더불어 혼란한 정국 속에서 재일코리안의 지식인이나 엘리트들이 동원되어 그들의 민족정체성 확립에 매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일코리안 민족정체성의 기반 위에 1960년대부터는 재일코리안의 ‘재민족화’ 과정으로서 민족차별에 대응하는 기독교계나 각종 사회단체의 ‘지지모임’, ‘생각하는 모임’들이 생겨나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80년대 재일코리안 사회는 일본 전국으로 확대된 민족차별과 배제에 대응한 사회운동으로 당시 재일코리안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미니코미(작은 책자)정보지가 대량 생산되었다.

그러나 한국 내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글로벌화와 다문화공생의 영향이 재일코리안 사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글로벌화는 재일코리안 사회의 탈민족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1990년을 경계로 일본 내에서는 재일코리안 연구 및 연구자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재일코리안의 고령화, 젊은 청년층의 민족정체성 약화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글로벌시대 일본의 다문화공생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일코리안 중심의 사회운동이나 활동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살펴볼 때 향후 기존형태의 재일코리안 사회운동은 점차 소멸되고 재일외국인 연대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일코리안의 사회운동의 방향은 점차 문화운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체적인 현상은 한류를 둘러싼 한일 간 문화충돌이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후속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전체적인 연구내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에 주요 관심사였던 재일코리안의 민족차별과 배제에 대한 연구보다는 경제활동, 민족교육, 민족정체성, 축제, 다문화공생, 코리아타운, 한류 등 연구주제나 관심이 보다 다양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코리안 관련 국내외 연구의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코리안의 각성을 통한 응집성을 기반으로 한 민족정체성의 강화에 의한 재일코리안의 재민족화와 단체행동의 논리를 구축한 사회구조적 촉진요인, 둘째, 재일코리안 사회단체의 집단적 사회운동에 의한 재민족화와 탈민족화 경향의 동시출현, 즉 이러한 재민족화와 탈민족화의 과정으로서 개인의 각성과 선택을 통한 그들 자신의 주변화와 글로벌화의 양상,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화(탈민족화)에 따른 개인(개인화)의 선택에 의한 재일코리안 사회운동의 쇠퇴와 다문화공생의 확대에 의한 재일외국인 연대의 출현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재일코리안 사회는 지금과 같이 일본 내에서 소수민족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수민족을

응집하기 위한 재민족화와 탈민족화를 반복하는 사회구조와 패턴 속에서 재일코리안 연구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결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국내 재일코리안 연구에 있어서 시대별 재일코리안 용어의 활용도가 제일조선인-재일동포-재일교포-재일한국조선인-재일코리안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용어의 개념도 전보다 훨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국내외 이외의 제3국의 연구자들에 의한 재일코리안 연구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재일코리안의 민족운동을 정리해볼 때 1945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사회운동, 90년대 이후 문화운동에 대한 추이와 동향에 대한 자세한 후속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각종 재일코리안의 사회운동의 확산과정에서 파생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생산한 미니코미(작은 책자)정보지의 사료 수집을 통한 고찰과 검증작업을 후속연구자들에게 기대한다.

## 【參考文獻】

- 임영언(2010) 「일본의 문화적 특징이 기독교 성장에 미친 영향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43집, pp.369~392.
- 임영언(2011)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화자원으로서 연구사 고찰」 『일어일문학』 제50집, pp.353~368.
- 윤인진외(2011) 『재외한인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코리아.
- 崔吉城(1995) 「在日韓國キリスト教の普遍性と民族性」 『中部大學國際關係學部紀要14』 中部大學.
- アジア經濟研究所(1974) 『旧植民地關係刊行物總合目錄-朝鮮編-』 아시아經濟研究所 圖書資料部.
- アジア經濟研究所(1977) 『朝鮮文雜誌·新聞總合目錄』、아시아經濟研究所.
- 諺布물레의會(2010) 『日本の外國人政策と在日コリアン』 エルウィン.
- 河かおる編(2006) 『朴慶植文庫仮目錄 2』 滋賀縣立大學人間文化學部地域文化學科.
- 園部裕之編(1996) 『近代日本人の朝鮮認識に關する研究文獻目錄』、綠蔭書房.
- 東京都中央図書館(1976) 『東京都立中央図書館藏朝鮮語図書目錄』、東京都中央図書館
- 文化センター・アリラン(1995) 『梶村文庫朝鮮關係図書目錄』 梶村文庫朝鮮關係圖書目錄編集委員會.
- 日本朝鮮研究所(1974) 『朝鮮研究』 133.
- 日朝協會大阪府連合會(1960) 『日本で出版された朝鮮に關する図書目錄(1945年8月15日から~1960年8月15日)』 日朝貿易文化センター.
- ソニアリヤン、中西恭子譯(2005)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 在日朝鮮人とアイデンティティ』 明石書店.
- 大阪市立生野図書館(1996) 『韓國·朝鮮關連図書目錄』 大阪市立生野図書館.
- 平野健一郎、2000、 『國際文化論』 東京大學出版會.
- 韓皙曦(1981) 『青丘文庫圖書目錄』 青丘文庫.
- 韓皙曦(1981) 『青丘文庫圖書目錄 追補Ⅱ』 青丘文庫.
- 外村大、2004、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學的研究: 形成·構造·変容』 綠蔭書房.
-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Blackwell Publishers, Oxford (=2000、加藤節監譯 『民族とナショナリズム』 岩波書店)。

## 要 旨

本研究の目的は国内外で発表された在日コリアン研究に對する内容分析を通して1945年以降から現在に至るまでの在日コリアン研究の動向を把握し、示唆点を提供するとともに今後の研究の知見を擴大することにある。

本研究の方法と分析資料は筆者が長い間集められた日本で発行された在日コリアン研究関連目録と資料集を參考にした。韓國における在日コリアン関連研究資料はRISS(學術研究情報サービス)とKRI(韓國研究業績統合サービス)の中で在日コリアン関連キーワードを檢索して論文の分析に活用した。

本論文の分析の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

第一に、まず1945年以降在日コリアン研究の特徴は民族の自覺を通じた強い連帶性の下に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化による在日コリアンの再民族化が団体の行動論理を構築したと考えられる。

第二に、1960年代以降在日コリアン研究は団体の集团的社會運動による再民族化と脱民族化が同時に出現し始めた時期である。このような再民族化と脱民族化を通して在日コリアンたちは個人の自覺と選擇による自己自身の周辺化とグローバル化の流れに分かれたと考えられる。

第三に、1980年代以降在日コリアン研究の特徴は全世界的なグローバル化(脱民族化)による個人化の選擇と社會運動としての在日コリアン運動の衰退、そして日本社會における多文化共生の擴大による新たな社會運動として在日外國人連帶の出現である。これに對する具体的な研究は今後の課題にしたい。

結果的に在日コリアン社會は脱民族化の進行によってマイノリティ団体としての差別問題や限界を克服するためには前より厳しくなったと考えられる。今後在日コリアン社會は民族団体としてマイノリティの連帶性を強化するために再民族化と脱民族化を繰り返す社會構造の中を辿る運命であり、そのパターンの中で在日コリアン研究の運命も決定されると予想される。

最後に今後の研究課題として今回の研究で排除された第3國の研究者による在日コリアン研究の動向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そして本研究の結果提示された各種在日コリアンたちによる社會運動の擴散過程で派生された市民社會団体が生産したミニコミ情報紙の資料収集と分析作業が今後の課題として残されている。

キーワード：在日コリアン、社會文化運動、民族差別、個人化、再民族化、民族団体、脱民族化、周辺化、連帶性、多文化共生、在日外國人連帶

투 고 : 2013. 5. 31  
1차 심사 : 2013. 6. 15  
2차 심사 : 2013. 7. 6